

# 국내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 대상 중국어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

鄭有善\* · 李多惠\*\*

## 目次

1. 서론
2. 자녀 언어 사용 현황 및 문제점
3. 자녀 대상 중국어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
4. 결론

## 1. 서론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sup>1)</sup>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에 해당된다. 그중 한국인 남자와 비한국계 중국인 여자와의 혼인이 20,635건(66.2%), 한국인 여자와 비한국계 중국인 남자와의 혼인이 5,042건(42.2%)으로<sup>2)</sup>, 비한국계 중국인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祥明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助教授

\*\* 祥明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碩士課程

1) 다문화가정이라고도 부르는 다문화가족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는 2004년 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 결혼 가정의 아이들을 ‘혼혈’로 부르지 말고 ‘다문화가정2세’로 부르자고 제안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다문화가족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통칭하여 부르 고자 한다.

2) 정하성,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국학술정보, 2009, 152쪽.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역시 2007년 4만 4,258명, 2009년 10만 명, 올해는 20만 4,2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이 가운데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sup>4)</sup> 자녀는 50.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수적인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국내 비한국계 중국 국적을 가진 결혼 이민자 가족은 여전히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인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사용이 우선시 되는 가정 내 분위기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중국어 의사소통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고스란히 가정 내 문제 발생의 여러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 사회 적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소지를 양산해 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간극을 좁힘과 동시에 21세기 글로벌 사회로서의 영향력을 지니기 위해,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어교육도 한국어교육과 병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문학계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실질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인식 및 공감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 중국어교육의 영역과 방법을 확장하고, 절대다수 중국인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 방안 마련에 일조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의 언어 사용 현황과

3) 김예슬, "다문화 자녀 20만명... 교육정책 실효성은 '글쎄'", 『뉴스천지』, 2014.9.29.

4) 국내 비한국계 중국(대륙) 국적 결혼이민자 가족은 국내 한국계 중국(대륙 조선족) 국적 결혼이민자의 상대되는 표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비한국계 중국(대륙)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부르기로 한다.

5) 윤인진,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이담북스, 2010, 24쪽.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중국어교육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자녀 언어 사용 현황 및 문제점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父 혹은 母)와 자녀들의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나 인식은 중국인 상대 배우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보다 높은 반면<sup>6)</sup>, 중국어에 대한 인식은 한국어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sup>7)</sup>. 이에 반해 한국인 배우자는 상대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어교육을 받는 자세에 비해 배우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중국어를 배운 경험 역시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sup>8)</sup>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지 못한 다문화가족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sup>9)</sup> 따라서 관련 정부의 각 기관 및 일반 기업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sup>10)</sup>

한국인 배우자들의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중국어 사용에 대한 비교적 낮은 지지도는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의 중국어 사용빈도를 점차 감소시키고 있으며<sup>11)</sup>, 자녀의 중국어 사용 의지와 학습에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2)</sup> 일례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관련 실태조사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6)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50-51쪽.

7)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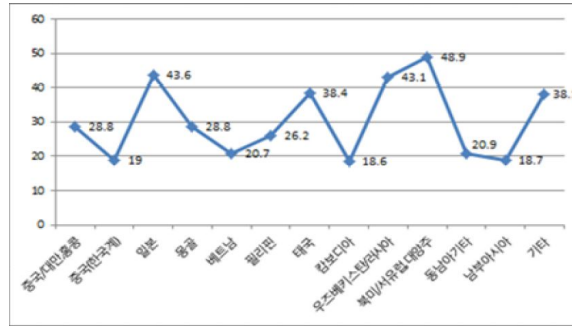
8)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46쪽.

9)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46쪽 [그림 III-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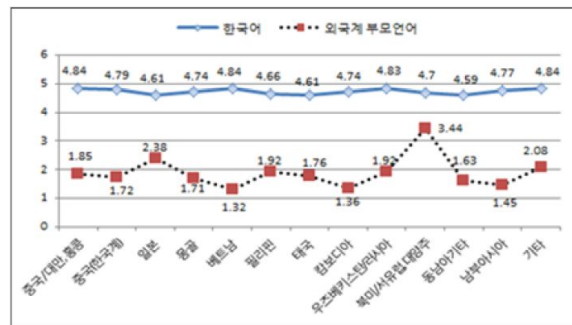
10) 유현진, “다문화가정 아이들, 부모 모국어 배울 수 있게”, 『문화일보』, 2014.8.20.

11)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38쪽.

12)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59쪽, 62쪽.



[그림 1] 외국계 부모 출신국가별 청소년기 자녀의 외국계 부모언어 사용에 대한 한국계 부모의 지지<sup>13)</sup>



[그림 2] 외국계 부모의 출신국가별 청소년기 자녀의 외국계 부모언어 구사능력<sup>14)</sup>

위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에서 한국계 부 혹은 모는 상대 배우자가 한국보다 선진국일 경우 그들의 자녀가 상대 배우자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의 방증으로, [그림 2]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

13)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56쪽, 그림 III-12 인용.

14)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66쪽, 그림 III-17 인용.

의 경우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중국어 구사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다<sup>15)</sup>. 이와는 달리, 2013년 여성가족부의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2012년에 비해 그들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높아졌고 중국어 구사능력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 두 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1년 사이에 한국어 구사능력은 높아졌지만 중국어 구사능력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거나 혹은 기존의 구사능력보다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1년 4월 4일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7)</sup> 정부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을 하게 되면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에게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에게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모든 일은 장점과 함께 단점 역시 동시에 발생하게 마련이다. 부르디외가 “언어란 권력을 지닐 수 있다”<sup>18)</sup>고 말한 바와 같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정

15)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2, 591-605쪽.

16)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65-66쪽.

17)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 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18) 피에르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참조

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한국어를 교육받아 의사소통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가능해지자,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점차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물론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함께 동반하는 다른 현상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바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모국어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에서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정 내 그들의 위치가 점차 위축되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의 중심언어가 한국어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편중된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중국어 사용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국내 일반 가족의 부모와 자녀의 경우와 달리 감정과 언어가 완전하게 전달되는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체되거나 정서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sup>19)</sup> 즉, 가정 내 중국인 한쪽 배우자는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를 할 경우, 외국인 수준의 구사능력이나 발음으로 한국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모국어 수준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녀는 대화 시 중국인 한 쪽 부모를 답답하게 여길 것이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감소될 수 있다. 또 중국어로 대화를 하게 될 경우, 가정 내 중국어 노출기회가 적은데다가 중국어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자녀들에게는 중국인 한쪽 부모보다 수준이 중국어 구사능력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한쪽 부모의 일방적인 언어 행위가 될 수 있어 한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방이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해 두 언어 모두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19) 권미경,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4쪽.

의 자녀들 중에는 중국인 父 혹은 母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에 부정적 요소가 되는 TV시청, 인터넷 등에만 빠져,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단절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화의 단절이 언어 습득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sup>20)</sup>

그 결과는 다시 가정의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문제로 귀결되며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다시 학업성취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또래 친구들의 놀림과 차별, 폭행과 집단따돌림으로 괴로워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sup>21)</sup> 결국 그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McCabe와 Meller가 언어발달의 문제는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데에서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sup>22)</sup>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37%가 집단따돌림을 당했고 급기야는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그중 언어문제도 여기에 기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sup>23)</sup>

만약 적절한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적·정서적 질적 교감을 통한 소통이 있었다라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인 한 쪽 부모는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와 모국어인 중국어로 한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녀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중국인 한 쪽 부모에 대해 중국어를 모

20) 본 집필진은 2011년 5월 3일에 방영했던 KBS 러브 인 아시아 프로그램의 가정의 달 특별기획 1편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사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21) 김순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2011, 253쪽.

22) 김미예 외 2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6호, 한국간호과학회, 2012, 880쪽.

23) 한기진, 「[힐링 다문화가정] 하나금융 글로벌 인재 재목, 키우겠다」, 『뉴스핌 Newspim』, 2012.07.30.

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장점보다는 한국어를 어눌하게 구사한다는 단점만을 크게 부각시켜 그들 부모를 인격적인 부분까지 무시하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sup>24)</sup> 이는 심각한 가정문제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 3. 자녀 대상 중국어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더욱 더 세계화, 다양화,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세계 공동체의식이 요구되며 다른 나라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기”<sup>25)</sup>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헌장 제1조에서도 “언어에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9주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6곳, 서울 서대문구·성북구,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경남 양산에서는 부모-자녀 이중 언어 상호작용 교육이 시범 실시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 발달이나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sup>27)</sup>,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여 가족 간 의사소

24)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제12권 4호, 열린유아교육학회, 2007, 32-33쪽.

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려서부터 기본 2개국어…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로”, 『정책브리핑』, 2014.11.3.

26) 유네스코 헌장 제1조(목적과 임무) 1. 이 기구의 목적은 국제연합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27)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교육 강화 보도자료, 2014.8.20, 1쪽.

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활한 중국어 구사능력과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깊이 절감하게 된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들은 한 쪽 부모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과는 달리 중국어 구사 능력을 잠재하고 있어, 이들 대상 중국어교육을 일반 외국어교육방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이며, 또 교육 이전에 우선 이들의 중국어 구사능력 유무와 정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 개개인이 갖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가정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상담자의 자세로 접근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향후 그들의 중국어교육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전제로 하여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교육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능력 구비 필요성 제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교육은 상당 부분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기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한국어만큼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강요하는 다문화가족 내 혹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교육을 할 때는 글로벌 마인드를 제시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수자는 이중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혹은 그러

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 쪽 부모의 모국인 중국에 대한 관심을 한국과 연결시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다문화가족 자녀가 고의로 닫은 귀와 입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언어인 중국어를 교육이라는 공개된 방법으로 학습하게 되면 본인이 은연중에 잠재하고 있던 이중언어구사의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14년 6개 센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로 이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언어발달지도사 300여명 정도가 센터 등의 관련 기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부모-자녀 이중언어 상호작용 교육이 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대문구, 성북구, 파주시, 당진시, 함평군, 양산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잠재가능성이 넘치는 미래세대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비전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sup>28)</sup>

## 2) 사회와 가정의 이중언어환경 조성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 교과부는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시·도에서 2013년 9개 시·도(대전·충북 추가)로 이중언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

2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안내의 내용 참조.

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중언어강사’ 제도를 마련했다.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서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하도록 했다.<sup>29)</sup>

한편 문화관광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중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이 병행되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sup>30)</sup>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래 다섯 가지 형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31)</sup>, 정부지원여성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대학 부설 연구소, 다문화 중국어교육 연구소 등에 중국어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는 한국어 위주의 교육 및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어 관련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이중언어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기초 법질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국어과정과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사회 이해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기초

29)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년)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13-2017』, 법무부, 2013, 87쪽.

30)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년)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13-2017』, 법무부, 2013, 355쪽.

31) 2014년 8월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자료 : 다누리 홈페이지 <http://www.liveinkorea.kr>)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현황	24	9	7	9	4	5	5	1	30	18	12	14	14	21	23	19	2	217

부터 중급까지 총 46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sup>32)</sup>.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중국 관련 혹은 중국어로 구성된 내용이나 교육을 곁들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필요한 이중언어환경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언어 기반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서 활동 프로그램도 병행함으로써 이중 언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올해 5월, 외국인주민 40만 시대「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처음 영등포구 대림동에 제2글로벌센터를 열어 한국어교육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2글로벌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함께 중국어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에 가장 근접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33)</sup>

넷째,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 혹은 이중언어특별반에서 중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중언어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한 공간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학생이 중국어교육을 함께 받음으로써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일반학생도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며 일반학생의 경우 제 2언어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 혹은 이중 언어 특별반에서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중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의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 6세~12세 때는 언어 발달이

32) 송진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법무매거진』, 2014.6.5.

33) 서울시, 외국인주민 40만 시대「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보도자료, 2014.5.8.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시공간에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중 언어 사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누기 때문에 엄마 쪽의 언어능력이 더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언어를 균형 있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거나, 책을 읽어 주는 것과 같은 부모-자녀 간 활동을 함께 하면 두 언어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이중 언어 사용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sup>34)</sup>, 관련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한국어의 사회적 지위가 더 우세하여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또래 친구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父 혹은 母는 부득이하게 한국어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자녀 역시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고 중국어를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녀들은 한국어에만 치우친 언어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균형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중국어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sup>35)</sup>

### 3)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전문 교수자 양성

과거 단일 언어를 줄곧 사용해 왔던 우리나라가 다문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두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sup>36)</sup>

34) 나카지마 카즈코,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한글파크, 2012, 33쪽.

35) 나카지마 카즈코,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한글파크, 2012, 33-34쪽.

36)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어와 소수민족언어

여성가족부는「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환경의 긍정적인 부분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각에서 중국어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할 경우 일반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교육과 차이를 두고 관련 분야의 전문 교수자를 양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 교수자 양성을 크게 아래 다섯 가지 방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관련 교육을 받은 한국인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인 교수자로는 중국어교육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부 및 석박사생 등이 될 수 있으며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원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중국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어민 중국어교수자와 한국인 한

로 이중언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라 소수민족언어의 사용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는 한어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학교라면 소수민족언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다족군의 다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어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어와 기타 언어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언어도 소수 민족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정책으로 규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수언어를 교육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수언어의 수명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어와 마오리어를 사용한다. 마오리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마오리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마오리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오리 언어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소수언어를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구성함으로써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어와 소수민족의 언어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어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펴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영어,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이중언어교육을 하고 있다. 불어의 경우는 기초적인 불어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으며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12~17세의 청소년들에게 불어교육을 제공하는 공립학교가 많다. 이와 같이 각국은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국어교수자가 다 있어야 하는 지금의 교육환경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관련 교수법을 숙지한 교수자가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자세로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로도 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도 중국어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수업설계, 학습 활동, 수업 교구 등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국어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 3년마다 자격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한 자기계발과 노력을 통해 교육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지도사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중국어교육 방문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한국어와 중국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인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을 신청받아 다문화가족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한국어와 중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가정방문 시간을 부모와 협의하여 수준별로 학습진도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1세대를 교수자로 양성하고 중국어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1세대는 최고령이 50대로 추정되며 이들을 이중언어 교사 양성과정에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수료한 후, 관련 기관으로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를 교육하게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2세를 교수자로 양성하여 중국어 교육을 시행하게 한다. 다문화가족 2세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4) 다문화가족 대상 이중언어교육 교수법 및 교재 개발

관련 교수자나 교육전문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를 이중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교수법 개발 시 아래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중국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언어 기능을 고루 익히겠다는 목표<sup>37)</sup>를 설정하고, 동시에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와 서로 협력하고 친밀감이 높아지며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관련 교육여건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는 중국어교재와 교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sup>38)</sup>.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과 중국어에 대한 경험, 언어·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대 언어 기능이 모두 학습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 중심 교수법과 과업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교재가 개발된다면 그들이 닫은 입과 귀를 열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나 기존의 중국어 수준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교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아 워크북을 통해 수준에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9)</sup>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 한국어교재나 녹음자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온라인 중국어교재나 멀티미디어 중국어교재, 녹음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나오는 말

최근 정부는 이중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가

37) 엄익상 외 2인, 『중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2011, 79-81쪽.

38)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110-111쪽.

39) 황진영,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198-221쪽.

족 자녀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영유아기 때부터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사회 인재로서의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산학 모두 이중언어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더 크게 인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정서 교류는 물론 이중언어사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흐름에 맞춰 중국인 한쪽 부모를 둔 자녀에게 한국어교육 뿐 아니라 중국어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중국인 한쪽 부모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보다 더욱더 건강한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되어 사회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비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의 언어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중언어교육적 시각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중국어교육에 대해 현 교육여건에서 시행할 수 관련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가 관련 교육과 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나카지마 카즈코,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한글파크, 2012.
- 엄익상 외 2인, 『중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2011.
- 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012.
- 여성가족부, 『2013년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법무부, 2013.
- 윤인진,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이담북스, 2010.
- 정하성,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국학술정보, 2009.
- 황진영,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강기정, 박경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다문화사회연구』제4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1.
- 고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제안」, 『교육의 이론과 실천』제15권 2호, 한독교육학회, 2010.
- 김미예 외 2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과 부모-자녀 응집성이 자아존중감 및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제42권 6호, 한국간호과학회, 2012.
- 김순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2011.
- 서종남,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제42권 1호, 한국 사회과교육학회, 2010.
-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제12권 4호, 열린유아교육학회, 2007.
- 조승석, 김희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14권 11호, 2013.

- 채옥희 외 3인, 「국제 결혼 가족의 가정생활 적응 전략」, 『한국가정관리학 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
- 홍종명,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 강희구,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어려움이 다문화 교육에 주는 함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권미경,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변경미, 「초등학교 미술과 영어 몰입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 6학년울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예슬, “다문화 자녀 20만명… 교육정책 실효성은 ‘글썸’”, 『뉴스천지』, 2014.9.2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자료 : 다누리 홈페이지 <http://www.liveinkorea.kr>), 2014.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려서부터 기본 2개국어…다문화 자녀 글로벌 인재로”, 『정책브리핑』, 2014.11.3.
- 서울시, 외국인주민 40만 시대「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보도자료, 2014.5.8.
- 송진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법무매거진』, 2014.6.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http://www.mogef.go.kr))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안내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교육 강화 보도자료, 2014. 8.20.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유네스코 현장
- 유현진, “다문화가정 아이들, 부모 모국어 배울 수 있게”, 『문화일보』, 2014.

8.20.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시도/이혼사유별 이혼, 2012.

피에르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출판사 서평.

한기진, “[힐링 다문화가정] 하나금융 글로벌 인재 재목, 키우겠다”, 『뉴스핌 Newspim』, 2012.07.30.

Abstract

Some Proposals on Chinese Education for Children of Married Immigrant Family  
in Korea

Jung, You Sun · Lee, Da Hy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ccounts for 2% of whole number of population. Among them, the multicultural family consisting of non-Korean Chinese and Korean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showing 20,635(66.2%) marriage cases between Korean man and non-Korean Chinese woman and 5,042(42.2%) between non-Korean Chinese man and Korean woman. For those reasons, the numb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Safety Executive, the number of the multicultural children has steadily increased from 44,285 in 2007 to 204,204 this year. As the percentage of non-Korean Chinese married Immigrant family is 50.7%, it takes the first place.

In contrast with this trend, marriage based immigrants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still complain of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in Korea. Due to the environment that using Korean language is preferred, they don't have any choice but to use Korean at home, leading to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children using Chinese. As a result, emotional connectedness is going dow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y have an identity crisis. They have become various elements in home problems and can influence negative effects on social unification. It's the right time to implement Chinese teaching for the spouse and children of non-Korean Chinese married Immigrant family with an active and tolerant attitude to narrow down the gap of problems and to have the influence as a global society.

However, it is true that a discussion or enforcement on the social recognition and need of this problems has not been treated. Thus, this study proposed Chinese teaching for the children of non-Korean Chinese married

Immigrant family.

Key words : Chinese Education the Multicultural Family, Non-Korean Chinese and Korean,  
Children of Married Immigrant Family

투 고 일 : 2015. 1. 10. / 심 사 일 : 2015. 1. 15. ~ 2015. 2. 15. / 게재확정일 : 2015. 2. 16.